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4, 709 - 726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되어 온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개관해 봄으로써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 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동의 발생률을 국외와 국내 모두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모델들 중에서 Riggs와 O'Leary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서 연구 방법상의 문제들을 거론하였으며, 본 연구가 추후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 폭력, 심리적 위험 요인, 배우자 폭력

미혼의 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관계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하게 된다. 그런데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데이트 상황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폭력

적인 행동이 관찰되고 있다(Carlson, 1991). 이러한 이성교제 폭력은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강남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귀여루,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읍 산 6-2,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 031) 280-3484, E-mail : agyr7@kangnam.ac.kr

데이트 폭력의 정의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정의는 ‘타인에게 고통이나 손상을 줄 의도로 신체적 힘이나 구속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따르게 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Sugarman& Hotaling, 1989). 첫째는 심리적 학대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전략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성적인 공격행동도 일종의 신체적 폭력의 일종이고,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고 있음에도 이 폭력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정의는 공격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보다는 신체적 공격 자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일하게 Makepeace(1984)의 연구에서만 데이트 폭력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Puig(1984)는 교제 상대에 대한 폭력을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공격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Carlson(1987)은 데이트 폭력을 “낭만적 관계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사이의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Thompson(1986)은 교제 관계의 폭력을 “상대방에게 신체적, 언어적 학대 행동을 하거나 그에 대한 위협을 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은

“데이트나 짹 고르기 과정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동안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Sugarman과 Hotaling(1989)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를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상황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사이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는 (1) 결혼 관계 혹은 이혼 관계의 커플은 포함하지 않으며; (2) 첫 번째 데이트에서부터 동거에 이르는 다양한 관계를 모두 포함하며; (3) 이성관계뿐 아니라 동성 관계도 포함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와 “이성교제 폭력”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영숙(1998)의 연구에서는 이성 교제 폭력을 ‘결혼한 경험이 없는 남녀가 결혼 전 교제하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유선영(2000)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결혼한 경험이 없는 남녀가 결혼직전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데이트뿐만 아니라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선택과정과 관련된 낭만적인 남녀간의 관계 내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정서적, 신체적,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며 인정되는 정서적, 신체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서경현(2004)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관련 용어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초기 연구들

1981년에 Makepeace가 많은 수의 대학생이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결혼 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이 낭만적인 시기로 여겨지는 교제 기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연구자가 Makepeace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Makepeace(1981)의 연구에서는 부부 사이의 폭력이 혼전의 구애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주목하여, 원가족과 새로 만들어지는 가족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폭력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보았다. 1983년의 후속 연구에서 Makepeace는 데이트 폭력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경우 학사성과나 실연 등의 생활상의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데이트 폭력의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Cate, Henton, Kovel, Christopher와 Lloyd(1982)는 35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Henton, Cate, Kovel, Lloyd와 Christopher(1983)는 644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 단계의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대학생의 경우 Makepeace의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22.3%의 경험율을 보였고, 고교생의 경우에는 훨씬 낮은 12%의 경험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성 교제의 빈도와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트 폭력의 경험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상당수의 경우 교제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가까워졌다고 답한 점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국내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이성교제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21%에서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영(2000)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성교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폭력을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이성교제 폭력은 성장기의 가정 폭력의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폭력 피해는 이성교제 폭력의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교제 폭력의 허용도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귀여루(2001, 2002)의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심리적 적응과 이성교제 폭력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숙과 조현각(200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의 위험 요인은 비행경력, 우울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교제 기간, 교제깊이였으며 성적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성별, 범죄 경력, 사회적 지지도, 통제력,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로 밝혀졌다. 또한 서경현(2004)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중 폭력 경험과 관찰 모두가 초기 성인기의 데이트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의 발생률

데이트 폭력의 발생률은 폭력을 어떻게 정의

하고 측정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Hamby, Poindexter와 Gray-Little(1996)은 폭력을 측정하는 4개 척도를 비교하면서, 척도의 내용이나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응답자가 폭력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성교제폭력 발생률은 폭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하는 조사대상자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Sugarman & Hotaling, 1997) 연구 간에도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이를 폭력의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빈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에 심리적 폭력의 개념을 포함한 Neufeld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623명의 여대생 중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91%에 이른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ezl 등(1996)의 연구는 96%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hite와 Koss(1991)의 연구는 87%의 사람들이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에도, 심리적 폭력경험이 포함된 경우 99%(김정란, 1999)의 사람들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신체적 폭력만을 포함하는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 대학생들은 20%-50%정도로 추정된다 (Bookwala et al., 1992; Makepeace, 1986; Sigelman et al., 1984; White & Koss, 1991). 특히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도 20%-30%의 사람들이 이성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Arias et al., 1987; Riggs & O'Leary, 1996). 성적인 폭력의 경우에는 15%(Jezl et al., 1996), 20%(김정란, 1999), 25%(Chen, 1996; Koss et al., 1987) 등

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배우자 폭력과 다른 점의 하나는 데이트 폭력이 여성의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주체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남성이 폭력을 더욱 많이 행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김용미, 1996; DeKeseredy, 1996; Kreiter et al., 1999; Langley et al., 1997; O'Keefe et al., 1986), 남성과 여성의 비슷한 비율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보고도 있으며(김예정, 1993; O'Leary et al., 1989), 여성의 더욱 빈번하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기록도 있다(김정란, 1999; Foshee et al., 1999; Hanley et al., 1997; Heather & Vangie, 1997; Jezl et al., 1996; Magdol et al., 1997; O'keefe, 1997; Riggs, 1993; Roscoe & Kelsey, 1986; Simonelli et al., 1998). 이와 같은 연구들 간의 상반된 결과는 어떤 성이 데이트 폭력의 주된 가해자인지를 불분명하게 한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남성의 폭력이 실제보다 낫게 측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왜냐하면 첫째, 남성은 자신의 폭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폭력을 축소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angley et al., 1997; Magdol et al., 1997; Sugarman & Hotaling, 1997). 반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지 않고 손상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폭력을 부담 없이, 어떤 경우에는 과장해서 보고하기도 한다(Heather & Vangie, 1997; Makepeace, 1986).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서 자신의 폭력을 최소화한다는 견해

이다. 실제로 사회화 과정에서 폭력을 많이 접하는 남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진정한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Riggs & O'Leary, 1996).

남녀간의 폭력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학자는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즉 단지 폭력의 행사 유무에만 초점을 둔다면 폭력에 내재하는 중요한 측면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호폭력에 주

목한 연구는 남녀가 행하는 폭력이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을 밝히고 있다(Heather & Vangie, 1997). 남성들의 폭력이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면 여성들이 사용하는 폭력은 상대방의 공격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O'keefe, 1997).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폭력과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사용한 폭력은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누가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상당수의 연구는 폭력의 영향으로 여성의 손상 정도가

표 1. 외국 연구에서의 데이트 폭력 발생빈도

연구자 및 연구 년도	폭력율	표본크기
Bernard & Bernard, 1983	30.0%	461
Billingham & Sack, 1987	32.1%	526
Cate et al., 1982	22.3%	355
Comins, 1984	52.0%	354
Deal & Wampler, 1986	47.0%	410
Ferraro & Johnson, 1984 ¹		
(a)	24.8%	418
(b)	22.2%	502
(c)	37.0%	521
(d)	41.3%	367
Henton et al., 1983	12.1%	644
Lane & Gwartney-Gibbs, 1985	33.0%	325
Laner, 1983	64.9% ²	371
Makepeace, 1981	21.2%	202
Makepeace, 1986	16.7%	NR ³
Matthews, 1984	22.8%	351
Mckinney, 1986a	66.2%	163
Murphy, 1984	40.4%	485
O'Keefe, Brockopp & Chew, 1986	26.9%	256
Sack, Keller & Howard, 1982	24.0%	211

¹◎ 연구는 4개의 분리된 사회조사를 포함한 것이다²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한 것이다³표본의 크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 Pirog-Good & Stets(1989)에서 발췌한 것임

남성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고한다(Carlson, 1987; Gamache, 1991; Heather & Vangie, 1997; Langley et al., 1997; Makepeace, 1986; O'Keeffe et al., 1986; Riggs, 1993; Sugarman & Hotaling, 1989).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성교제폭력의 발생률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폭력을 얼마나 자주 행사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론적 모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이론적 모델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변인들을 선별하고 이 변인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경우가 많았다.

Sugarman과 Hotaling(1989)은 다양한 데이트

폭력 연구를 정리하면서 데이트 폭력의 위험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 즉 정신내적 요인과 가족 요인, 대인 관계 요인, 스트레스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로 나누었다. 정신내적 요인에는 혼전 폭력과 배우자 폭력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성격이 포함되며 가족 요인에는 가족사, 원 가족에서의 폭력 목격 경험에 포함된다. 대인 관계 요인에는 이전의 데이트 경험, 의사소통, 힘과 지원의 가용성이 포함되며,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인종, 가족의 수입, 종교, 나이, 출신이 포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였다.

한편 Lloyd, Koval, 및 Cate(1989)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존감이나 성역할 태도, 스트레스, 가족사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표 2. 국내 연구에서의 데이트 폭력 발생빈도

연구자와 연구 년도	폭력율	표본크기
김예정, 1993	65.3% *	
	폭력행동 24.7%	400
	공격행동 36.0%	
김용미, 1996	21.3%	92
이영숙, 1998	사례연구	11
김정란, 1999	52.4%(가해) 43.6%(피해)	420
유선영, 2000	50.7% (정서적 폭력 포함)	517
안귀여루, 2001	43.6%	342
장희숙, 조현각, 2001	21.4%	771
안귀여루, 2002	29.8%	292
서경현, 2004	28.7%	897

*폭력 행동; 밀거나, 움켜쥐고 흔들기, 뺨때리기, 발로차기 등의 행동

공격 행동; 상대방을 견냥하지는 않았지만 물건던지기, 때리겠다고 위협하기, 모욕적인 언어

는 못한다. 한편 이들이 관계 요인으로 든 것은 주로 갈등 해결 기술 혹은 패턴이었다. 예를 들어 교묘한 속임수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 기술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의 나열보다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물론 가정 폭력에 대한 모델들이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배우자 폭력에 대한 모델들은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트 폭력에는 적절하지 않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의 경우 전형적인 배우자 폭력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도 폭력행동을 보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성차별적 태도나 성역할-고정적인 태도들이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결혼 관계와 데이트 관계는 본질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관계의 개방성 문제나 지속기간의 여부, 폭력에

대한 허용도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1989년에 Riggs와 O'leary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따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모델을 두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심리사회적 변인(contextual variable)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적 변인(situational variable)이다. 심리 사회적 변인은 어떤 사람이 데이트 관계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론적 틀이고(그림 1 참조), 상황적 변인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공격행동을 만들어 내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인을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모델을 상정하였단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설정한 모델 중 심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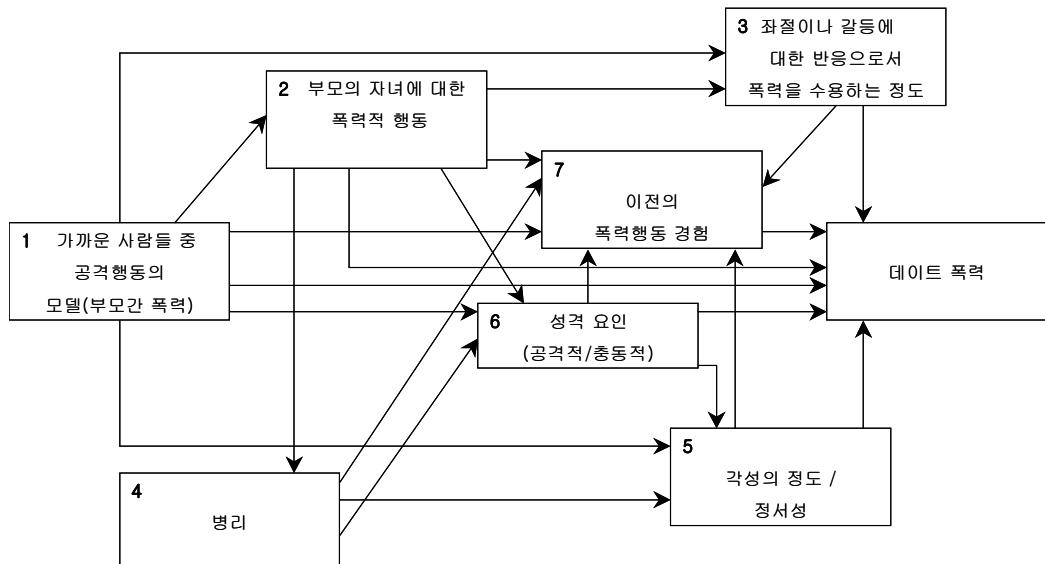


그림 1. 데이트 폭력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모델

회적 모델에 의거하여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 인자에 대한 국외 및 국내 연구들을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 공격행동의 모델이 존재하는 것, 성장기 부모에게서 경험한 폭력 경험, 좌절이나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서 폭력을 수용하는 정도, 개인의 정신 병리, 각성의 정도나 정서성, 성격요인, 이전의 폭력행동 경험등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데이트 폭력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을 설명하면서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한 모델

한 개인이 친밀한 관계에서 공격성을 보여주는 모델에 노출된 경험은 나중에 데이트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가족들의 공격행동을 목격하는 것은 생애 초기의 모델링의 근거, 원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공격행동을 목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반적인 공격성 경향을 증가시키게 되고, 행동적으로도 공격적으로 되며, 공격성을 성격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문제 해결 시에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 폭력은 아동 폭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uriles, Barring & O'Leary, 1987; Straus, Gells, & Steinmetz, 1980). 그리고 이는 나중에 데이트 폭력으로도 연결된다. 데이트 폭력과 부모의 폭력 행동 목격과의 긍정적 관계에서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Bernard와

Bernard(1983)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보인 남성의 73%와 여성의 50%가 자신의 원가족 내에서 학대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데이트 폭력을 보이지 않은 남성은 32%, 여성의 23%만이 원가족 내에서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한다.

Sigelman, Berry 및 Wiles(1984)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간의 폭력과 데이트 폭력행동 사이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Riggs(1986)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공격행동과 남자의 데이트 폭력 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Arias(1984)는 부모간의 폭력 행동과 데이트 폭력은 성격변인에 의해 중재된다고 하였다. 남자의 경우는 부모간의 폭력은 남자의 데이트 폭력과 직접 관련이 있었고, 성격요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중재 역할을 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부모간의 폭력 행동이 성격변인을 통해서 데이트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keefe(1997)는 1,01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49%가 교제 중의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 연구의 경우 부모간의 폭력 행동의 목격경험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예정, 1993), 부모의 폭력행동 목격경험과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 행동이 모두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유선영, 2000).

폭력의 목격경험은 공격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를 무엇으로 지각하느냐는 이후에 목격자에 의해 그 행동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인이다. 즉 이전에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나중에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는 폭격자가 그 경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부모의 폭력 목격경험과 데이트 상황에서의 폭력 사용사이에서의 불일치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동

부모로부터 공격행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나중의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가설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검증이 되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공격 행동은 데이트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여기에 더해서 간접적으로는 성격요인, 공격에 대한 수용성, 일반적인 공격의 사용이라는 변인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끼친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 중 부모로부터 폭력 행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행동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세 편의 연구(Foo & Margolin, 1995; Riggs & O'Leary, 1996; Ryan, 1995)에서도 학대경험과 폭력의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폭력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DeMaris, 1987).

3). 좌절이나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서 공격행동을 수용하는 정도

모델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갈등, 스트레스, 혹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공격성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하는 정도이다. 공격행동의 수용 정도는 데이트 폭력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공격행동을 수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나 데이트 상황에서 모두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수용성의 정도는 부모의 폭력행동 폭격과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폭력 행동 경험의 영향을 받게 된다. Cate 등(1982)은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데이트와 결혼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Stets와 Pirog-Good(1987)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그 남성이 데이트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데이트 파트너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폭력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폭력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두 폭력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는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Heather와 Vangie(1997)가 185명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폭력을 사용한 학생은 사용하지 않는 학생보다 폭력에 더욱 관대하고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폭력행동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함은 O'keefe(1997)의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Riggs와 O'Leary(1996)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런 경향은 특히 남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

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폭력에 대한 태도(김예정, 1993),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장희숙&조현각, 2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유선영, 2001)가 데이트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신 병리

심리적 병리나 신경학적 병리는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연구에서 대부분 무시되어 왔다. Comins(1984)가 여성의 데이트 폭력 행동과 SCL-90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폭력의 경험이전에 심리적인 문제가 존재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의 증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의 공격행동에 신경학적 혹은 호르몬 요인이 작용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Detre, Kupfer & Taub, 1975; Reis, 1975; Lloyd & Weisz, 1975) 림빅 시스템의 손상이나 발작, 뇌손상, 바이러스 등이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로 있다(Detre, Kupfer & Taub, 1975). 국내의 경우 우울증이 데이트 폭력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장희숙, 조현각, 2001).

5). 각성의 정도와 정서적 반응성

각성의 정도와 정서 요인이 공격행동의 중요한 예언자로 보여 진다.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적인 공격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각성이나 정서적 반응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Bandura, 1973; Berkowitz, 1965; Feshbach, 1970). Zillman(1979)에 따르면 각성의 정도와 공격성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고 한다. 각성이 공격으로 이어지려면 촉발이 일어나야하고 그 각성이 촉발의 근원으로 귀인이 되어야 한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각성이 파트너의 촉발에 의해 일어났다는 귀인이 중요하다. 이 모델에서는 각성의 정도는 데이트 폭력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정서성과 각성을 측정하는 여러 변인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Cate 등(1982)은 데이트 폭력을 공격자 측에서의 분노와 혼돈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하였다. Makepeace(1981)은 질투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공격적 사건을 일으키는 불일치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Riggs(1986)와 Stet와 Pirog-Good (1987)는 여성에게 있어서 질투와 데이트 폭력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파트너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인 남성이 정서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iggs(1993)는 이성교제폭력을 행사한 대학생은 비폭력 집단이나 피해자 집단에 비해 질투심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 모델에서 정서성이 높거나 각성이 높은 것은 데이트 상대 사이에서 폭력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는 장희숙과 조현각(2001)이 질투심과 분노가 데이트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6). 성격

성격 요인들은 최근에 행동주의적 접근을 하는 이론가들에게 별 주의를 받지 못했지만 데이트 폭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성격변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Arias(1984)의 연구에

서 잘 드러나는데,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 성격특성은 대인관계에서 공격행동을 목격한 경험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한다. Riggs(1986)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격성이나 충동성 같은 성격 특성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자존심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못하다. Jezl 등(1996)은 고등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자존감에 관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자존감이 낮은 여성이 심리적 폭력을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폭력 가해와의 상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O'Keefe(1997)는 이성교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이 자존감이 낮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데이트 폭력 경험과는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안귀여루, 2001, 2002).

7). 이전의 공격행동이나 강요 경험

타인에게 공격행동을 한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Comins(1984)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데이트 파트너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여성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형제와 싸운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Riggs(1986)는 형제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했던 경험이 남녀의 데이트 파트너에 대한 공격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결과는 그 행동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까지 이전의 폭력 행동의

사용 결과와 현재의 데이트 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행동의 결과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과거에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데이트 파트너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경우 이전의 비행 경력의 유무가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장희숙, 조현각, 2001).

결론 및 이후 연구를 위한 제언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데이트 폭력은 개인적 요인들과 사회적 요인들이 모두 관련된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후 연구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크게는 그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토대가 없이 이전과 같이 연구가 진행된다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나 각 변인의 공헌 정도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 개관에서 사용한 Riggs와 O'Leary(1989) 모델의 경우, 사회경제적 또는 배경변수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인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에 사회 경제적 변인들과 관련

이 있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Magdol 등(1997)은 이성교제 중인 21세의 미혼 남녀 941명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특성을 밝혔는데, 직업이 없거나, 학력이 낮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하며, 비행경력이 있고, 알코올과 마약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물론 이와는 달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Foo & Margolin, 1995)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폭력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성교제폭력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elknap, 1989).

성별이나 연령의 경우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왔는데, 이성 교제 활동이 활발한 30대 이하가 이성교제폭력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rias, Samios & O'Leary, 1987). 한편 성별의 경우 보통 남성과 여성의 거의 동일한 비율로 폭력을 주고받거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가해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성교제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정도의 피해는 여성이 훨씬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Makepeace, 1981, 1996). Stets(198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손상, 피해자라는 느낌, 또 다른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가지 최근의 데이트 폭력의 연구 동향 중의 하나는 데이트 폭력 경험을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고 그 본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데 Riggs 와 O'leary의 모델은 이를 분리하지 않아서 결과

적으로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을 구분한 것이 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상황에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경우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 연구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와 국외의 연구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Riggs와 O'leary의 모델에서 언급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결과가 국내와 국외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살펴 본 연구들이 매우 드물고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예측되는 몇몇의 요인들과 데이트 폭력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상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데이트 폭력의 설명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면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연구자들이 거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연구나 학생이 아닌 그룹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한 가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문제이다. 폭력 행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CTS(Conflict Tactic Scale)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마다 폭력행동을 연구에 맞게 임의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적 폭력을 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폭력행동만을 측정하고 어떤 경우는 폭력에 대한 협박도 포함하기도 한다. 또 어떤 연구는 평생의 경험을 물어보고 어떤 연구는 지난 한 달간을 측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연구들이 서로 비교가능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의 측정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일치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폭력행동을 경험의 유무로 나누는 연구자와 빈도와 정도의 합으로 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남성-여성의 분류를 달리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연구들에 대부분 조사 연구를 주로하고 있는데 행동 관찰이나, 실험 등의 다른 방식을 사용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연구를 주로 하는 경향은 발생 빈도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의 주의를 폭력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뿐 아니라 억제하는 요인 쪽으로 옮겨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데이트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런 경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데이트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나 억제요인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데이트 폭력은 다른 종류의 가정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배우자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arlson, 1987),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의 발생 빈도와 맥락, 위험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의 본질에 대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예정(1998), 지속적인 이성교에서의 갈등표출행동,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1996), 미혼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 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1), 147-162.
- 안귀여루(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79-695.
- 안귀여루(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9.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 폭력 피해와 이성교제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 장희숙, 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 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7-202.
- Arias, I.(1984). A Social Learning Theory Explication

-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hysical Aggression in Intimate Heterosexual Relationships.: Ph.D.dis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Arias, I., Samios, M., & O'Leary, K.(198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82-90.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el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llknap, J.(1989). The sexual victimization of unmarried women in nonrelative acquaintances, In M. A. pirog-Good & J.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 Berkowitz, L. (1965).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301-329), Vol. 2. New York: Academic.
- Bernard, M. L. & Bernard, J. L.(1983). violent intimacy :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 Billingham, R. E., & Sack, A. R.(1987). Conflict resolution tactics and the level of emotional commitment among unmarrieds. *Human Relations*, 40, 59-74.
- Bookwala, J., Frieze, I., Smith C., & Ryan, K.(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Carlson, B. E.(1987). Dating violence: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abus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8(1), 16-23.
- Carlson, B. (1991). Outcomes of physical abuse and observation of marital violence adolescents in place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526-534.
- Cate, R. M., Henton, J. M., Kove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violenc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1), 79-90.
- Chen, R.(1996). "Risk factors of sexual abuse among colleg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1), 79-93.
- Coleman, K. H. (1980). Conjugual violence: What 33 men repor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 207-13.
- Comins, C. A. (1984). Violence Between College Dating Partners: Incidence and Contributing Factors. Doctoral diss., Auburn University.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NH.
- Deal, J. E., & Wampler, K. S. (1986). Dating violence: The primacy of previous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4), 457-71.
- DeKeseredy, W. S.(1996). "The Canadian national survey on woman abuse in university/college dating relationship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8(1), 81-104.
- DeMaris, A.(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291-305.
- Detre, T., Kupfer, D. J., & Taub, S.(1975). 'The Nosology of Violence. In W. S. Fields & W. H Sweet(eds.), *Neural Bases of Violence and Aggression*, 2940316. St. Louis, MO: Green.
- Erez, E. (1986). Intimacy, violence and the police.

- Human Relations*, 39(3), 265-81.
- Ferraro, K. J., & Johnson, J. M. (1984, August). The meanings of courtship violence.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NH.
- Feshbach, S. (1970). Aggress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159-260. New York: Wiley.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m G. F.(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2.
- Gamache, D.(1991). Domination and control: The social context of dating violence, In Barrie Levy (Ed.), *Dating violence(pp. 69-83)*, WA : Seal Press.
- Giles-Slims, J.(1983). *Wife-battering: A systems theory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amby, S. L., Poindexter, V. C. & Gray-Little, B.(1996). Four measures of partner violence : Construct similarity and classification differ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27-139.
- Hanley, M. J. & O'Neill, P.(1997). Violence and commitment: A study of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685-703.
- Heather, M. G. & Vangie, F.(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126-141.
- Henton, J., Cate, R., Kovel, J., Lloyd, S., Christoper,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2), 101-24.
- Jezi, D. R., Molider, C. E. & Wright, T. L.(1996).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3(1), 69-87.
- Jouriles, E., Barling, J., & O'Leary, K. D.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73.
-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 Kreiter, S. R., Krowchuk, D. P., Woods, C. R., Sinal, S. H., Lawless, M. R. & DuRant, R. H.(1999). Gender differences in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date fighting, *Pediatrics*, 104(6), 1286.
- Lane, K. E., & Gwartney-Gibbs, P. A. (1985). Violence in the context of dating and sex. *Journal of Family Issues*, 6(1), 45-59.
- Laner, M. R. (1983). Courtship abuse and aggression: Contextual aspects. *Sociological Spectrum*, 3, 69-83.
- Langley, J., Martin, J. & Nada-Raja, S.(1997). Physical assault among 21-year-olds by

-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675-684.
- Lloyd, S.A., Koval, J.E., & Cate, R.M.(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 In M.A. Pirog-Good & J.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Emerging social issues*(pp. 126-142). New York: Praeger.
- Lloyd, C. W., & Weisz, J. (1975). Hormones and Aggression. In W. S. Fields & W. H Sweet(eds.), *Neural Bases of Violence and Aggression*, 92-127. St. Louis, MO: Green.
- Magdol, L., Moffitt, T. E., Caspi, A., Newman, D. L., Fagan, J. & Silva, P. A.(1997). Gender differences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1), 68-78.
- Makepeace, J.(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kepeace, J.(1984). The severity of courtship violence injuries and individual precautionary measure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NH.
- Makepeace, J.(1986). Gender difference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Makepeace, J. M(199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s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 Matthews, W. J. (1984). Violence in colleges. *College Student Journal*, 18, 150-58.
- McKinney, K. (1986). Measures of verbal, physical, and sexual dating violence by gender. *Free Inquiry into Creative Sociology*, 14(1), 55-60.
- Murphy, J. E. (1984). Date abuse and forced intre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NH.
- Neufeld, J., McNamara, J. R. & Ertl, M.(1999).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2), 125-137.
- O'Keefe, M.(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Keefe, N. K., Brockopp, K. & Chew, E.(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65-468.
- O'Leary, K. D., Barling, J., Arias, I., Rosenbaum, A., Malone, J. & Tyree, A.(1989). Prevalence and stabilit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spou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263-268.
- Puig, A. (1984). Predomestic strife: A growing college counseling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268-69.
- Reis, D. J. (1975). Central Neurotransmitters in Aggressive Behavior. In W. S. Fields & W. H Sweet(eds.), *Neural Bases of Violence and Aggression*, 57-89. St. Louis, MO: Green.
- Riggs, D. S.(1986). Conflict in Dating Couples: A Multiple Predictor Approach. Master's thesi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Riggs, D. S.(1993). Relationship problems and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1), 18-35.
- Riggs, D. S. & O'Leary, K. D.(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ournal*

- of Interpersonal Violence, 11(4), 519-540.
- Riggs, D. S. & O'leary, K. D.(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M. A. Pirog-Good & J. 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raeger Pub.
- Roscoe, B. & Benaske, N.(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Family Relations*, 34, 419-424.
- Roscoe, B. & Kelsey, T.(1986).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Human Behavior*, 23(1), 53-59.
- Roy, M. (1982). Four thousand partners in violence: A trend analysis. In M. Roy(Ed.), *The abusive partner*, 17-38.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Ryan, K. M.(1995). Do courtship-violent men hav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 "Battering personali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1), 99-110.
- Sack, A. R., Keller, J. F., & Howard, R. D. (1982). Conflict tactics and violence in dat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the Family*, 12, 89-100.
- Sigelman, C., Berry, C., & Wiles, K.(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imonelli, C. J. & Ingram K. M(1998).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en experiencing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 667-681.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3):237-46.
- Stets, J. E.(1989). Pattern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for men and women in dating relationships : A descriptive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4(1).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Anchor.
- Sugarman, D. B. & Hotaling, G. T.(1989)."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t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pp. 3-30), New York : Praeger.
- Sugarman, D. B. & Hotaling, G. T.(1997). Intimate violence and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2), 275-290.
- Thompson, W. E.(1986). Courtship violence: Toward a conceptual understanding. *Youth and Society*, 18(2), 162-76.
- White, J., & Koss, M.(1991). Courtship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6, 247-256.
- Zillmann, D. (1979). *Aggression and Hostility*. Hillsdale, NJ: Erlbaum.

논문접수일: 2006년 9월 15일

제재결정일: 2006년 10월 31일

Research Review about Psycho-social Risk Marke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hn, Gwi-Yeo-Roo
Kangnam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research articles to find psycho-social risk marke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Riggs & O'Leary's model of dating violence. And this paper addresses variety of operational definition of dating violence and early studies of dating violence. In addition,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 is reviewed. Riggs & O'Leary's model has proposed 7 variabl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They are model of agg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 parental aggression toward child, accept aggression as a response to frustration/conflict, pathology, arousability/ emotionality, aggressive/impulsive personality, prior use of aggression. This model serv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studies.

The discussion addressed limitations of this model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dating violence, psychosocial risk markers